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 시편 98(97),1.2-3ㄱㄴ. 3ㄷㄹ-4(◎2참조)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제2독서] ····· 1요한 4,7-1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5,9-17
[성가안내]
- 입당성가 [245] 맑은 하늘 오월은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78] 성체 앞에
- 파견성가 [135]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화자 소화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한영호 시메온	한정민 젬마
이만제, 원광남 부부	이영애 레지나 가족
이만제	이지훈 아녜스
제임스 M 한트, 홍 데레사	김경련 율릿다
김복조 글라라, 박영경	손명희 엘리사벳
손인숙 마리아	손명희 엘리사벳
손성연 가브리엘라, 황선 데이브	손명희 엘리사벳
홍은경 골롬바	김영숙 카타리나
생미사	**봉헌**
임금종 마가렛	양미숙 마리아
주세정 라헬	김영숙 카타리나
민재인 데레사	이은경 헬렌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양미숙 마리아
이하나 세실리아	방상욱 베드로
이미진 조앤 그레이스 (생일 감사)	이지훈 아녜스
이정주 소화 데레사	연령회
김 가롤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안선정 마리안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5월 9일	김진섭 야고보	이경자 율리안나	최진영 수산나	이경자 율리안나	민덕미 안젤라
5월 16일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고은경 모니카	민완준 필립보	김지영 유스티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 **오늘 견진성사 받으신 김 규헌 프란치스코 축하 합니다.**

● **Mothers' Day – 우리 모두 어머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해 드리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 **'성모 성월 – 5월'**

팬데믹으로 '성모의 밤'을 통한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못 드리게 되어, 5월 중 매주 주일 미사 입당 시 간단하게 우리 공동체의 정성을 표현 하고자 합니다. 한 마음으로 참석합시다.

5월 2일 – 성모님께 화관 씌워드림 (공동체를 대표하여 신부님)
5월 9일 – 초 봉헌 – 레지오 팀 대표 7명과 원하시는 분들
5월 16일 – 꽃 봉헌 – 레지오 팀 대표 7명과 원하시는 분들
5월 23일 - 성모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특송
5월 30일 – 성모님께 드리는 글 – 꾸리아 대표

● **- 아시안 증오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경험하신분 중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정부 전화 신고 방법 : 311로 전화
(원하면 언어권별 통역자 상시 대기함)

● **신부님과 함께 하는 성경 묵상 (대면)**

신부님과 함께 대면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각자 묵상한 것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달 동안 모집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신청자의 상황을 보고 추후 공지합니다**. 신청:신부님께 이름과 연락처 종이에 적어 주세요.**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풍물패 가칭 <신명> 풍물패 단원을 모집합니다."**

꽹과리, 징, 북, 장구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박 알버트 부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46-201-0175) 연습할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으며 당분간 모임 장소는 뉴저지로 정하였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회원들이 모이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청년 성서 모임 개강 안내 (Zoom Meeting)**

신청마감 : 5월 16일
개강 : 5월 23일 오후 7시
범위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문의 : 김 진섭 야고보 (201-912-7577)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7장 -

겸손에 대하여 계속

겸손의 여섯째 단계는, 수도승이 온갖 비천함 것이나
가장 나쁜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을 나쁘고 부당한 일꾼으로 여겨
예언자와 함께 "나는 쓸모없는 자이오며
알아듣지도 못하였나이다.
나는 당신 앞에서 짐승과 같은 처지오나
늘 당신과 함께 있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겸손의 일곱째 단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못하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의 말로써 드러낼 뿐 아니라,
마음 깊숙한 정으로 확신하여 자신을 낮추고
예언자와 함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조롱감이고 백성들의 천덕꾸러기니이다."
"내가 나를 높였음에 낮아지고, 부끄럽게 되었나이다."하고,
또 "당신이 나를 낮추셨기에
내가 당신의 계명을 배우게 된 것은
내게 좋은 일이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겸손의 여덟째 단계는, 수도승이 수도원의 공동 규칙이나
장상들의 모범이 권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겸손의 아홉째 단계는, 수도승이 말함에 혀를 억제하고,
침묵의 정신을 가지고 질문을 받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성서는 "많은 말에서 죄악을 피하지 못한다"
또 "말이 많은 사람은 이 지상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겸손의 열째 단계는, 쉽게 또 빨리 웃지 않는 것이니,
성서에 "어리석은 자가 큰 소리를 내어 웃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겸손의 열한째 단계는, 수도승이 말할 때 온화하고 웃음이 없으며 겸손하고 정중하며 간결한 말과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목소리에 있어서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이다. 책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말로 드러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전마지(마가렛)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김옥지(아가다)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김용기(요셉)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정영도
노의선

부활 제 6 주일 성경 묵상

(사도행전 10,25-26.34-35.44-48/1요한 4,7-10/요한 15,9-17)

'사랑은 말이나 혀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하는'(1요한 3,18 참조)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제2독서는 이 사랑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은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알려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고, 매우 역동적이며 능동적입니다. 어떤 이가 사랑을 얻기 위한 기도만을 부지런히 하며 정작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탁상공론일 따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충분하다 해도 남을 돕는데 인색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 안에서 사랑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참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당신과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고,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참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혀'와 '배'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곧 혀로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탐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여 애덕을 거스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또한 애덕의 실천을 부풀려 자랑함으로써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채우려는 탐욕은 마치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 치우며, 남의 것마저 가로채서 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교만과 탐욕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 신우식 토마스 신부 -

21년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금융계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광고주를 찾습니다